

# BBNJ 관련 역량강화 및 해양과학기술 이전 논의 동향 : 다른 MEAs와의 비교

조아영\*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Capacity Building and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in BBNJ : By comparing with provisions of other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Ah Young Cho\*

\*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핵심용어** : 역량강화, 해양과학기술이전,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생물다양성, 다자환경협약,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원칙

**Key Words** : Capacity Building,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BBNJ, MEAs, CBD

### 1. 개요 및 연구목적

...(중략)

본 연구에서는 현재 BBNJ 논의에서 4가지의 패키지 이슈 중 한 꼭지로 논의되고 있는 역량강화 및 해양과학기술이전에 대해 그간 이에 대한 담론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정리한다. 또한 현재 다자환경협약에서 역량강화 및 기술이전이라는 주제는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 BBNJ 논의에서 해당 주제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내놓고자 한다.

### 2. 다자환경협약과 역량강화 및 과학기술이전

개발도상국의 경우 인적자원, 재정, 기술수준 등이 부족하여 다자환경협약을 국내 수준으로 이행함에 있어서 많은 제한이 있다.

...(중략)

특히 세계 3대환경협약이라 할 수 있는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의 경우에도 이에 대해 내용을 정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저감 측면 뿐 아니라 적응의 맥락에서도 역량강화 및 기술이전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하지만 역량강화 및 기술이전의 수준, 범위 등에 대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대립이 존재한다.

### 3. BBNJ에서의 역량강화 및 해양과학기술이전

준비위원회에서는 네 가지 패키지 이슈(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이슈, 해양보호구역에 포함한 지역기반관리수단과 같은 조치,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와 해양과학기술이전)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중략)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공통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CBDR)”을 주장하며 역량강화와 해양과학기술이전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BBNJ 논의는 유엔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의 선진국과 개도국 간 역학관계에 차이가 있기에 기존의 논의를 그대로 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4. 결론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역량강화와 해양과학기술이전이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재원이 필요하다.

...(중략)

또한 개도국의 경우에는 각국에 필요한 기술 및 그에 대한 수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제공 가능한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정보의 공유가 되어야 실질적인 기술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 사** 이 논문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PE99536 사업의 연구 결과의 일부임을 밝힌다. 논문에 포함된 주장은 저자의 개인의 견이며 기관의 견해와 다를 수 있다.

\* First Author : ahyoung0707@kiost.ac.kr, 051-664-3740